

# 나의 배우자를 생각해보다: 주관성 연구를 활용하여

## Let's Think about My Partner: Using the Subjective Study

이도희\*, 김다요\*\*, 박행님\*\*\*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Doh-Hee Lee(2dohee@hanmail.net)\*, Da-Yo Kim(kimdayo311@naver.com)\*\*,  
Haeng-Nim Park(7phnim@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유형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42명을 P 표본으로 하여 최종 도출된 42개의 Q 표본을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배우자에 대한 주관성은 2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유형 I(n=36)은 '사랑-인연형', 유형 II(n=6)는 '실타래-책임자형'으로 정의되었다. 유형 I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배우자를 인연과 운명으로 인식하였고, 유형 II는 배우자를 실타래를 풀 듯 노력이 필요한 대상이며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인식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2가지 유형 간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유형에 따른 특성에 기초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배우자 | 주관성 연구 | Q방법론 | 가설발견적접근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and classify the types of the subjectivity on the perception of the spouse using Q methodology. In this study, 42 Q statements were selected as the Q sample through interview. 42 people who married person with their spouse as P samples were forced to distribute 42 Q samples on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PC QUANL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efined as two distinctive types. First, Type I(n=36) was defined as 'Love-Ties Type' and Type II(n=6) as 'Skein of thread - Person in charge Type'. Type I perceived their spouse as fate and ties emphasizing love for their spouse. And Type II recognized their spouse as someone requires effort like unravelling a thread and a person to be responsible for. In the result of this study,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were found. And it will be used as a basic resource to support a healthy and happy marriage.

■ keyword : Partners | Subjective Study | Q methodology | Abductive Approach |

## 1. 서론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혼수는 무촌관계이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성립되며, 혼인이 해소되면 이 관계는 상실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내연 관계가 된다[1].

접수일자 : 2018년 01월 08일  
수정일자 : 2018년 03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3월 12일  
교신저자 : 박행님, e-mail : 7phnim@hanmail.net

사랑하는 남녀는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되면, 이처럼 부부가 된 남녀는 서로에 대하여 ‘배우자’가 된다. 배우자는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 ‘반려자’, ‘짝’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존재는 ‘부부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부부’가 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이혼율은 33.7%이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는 2003년 17.8%에서 2014년 28.7%, 2016년 30.4%로 이혼율이 높아져 소위 ‘황혼이혼’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2]. 가족 위기와 관련된 현상으로는 가족해체 현상뿐 아니라 혼인건수 감소와 출산율 저하를 들 수 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혼인 건수 역시 2만100건으로 역시 1년 전보다 11.8% 줄었는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혼인으로 생성되고 출산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지금은 맺어진 가족도 흩어지고 있다. 높은 이혼율은 말할 것도 없고 ‘황혼이혼’ ‘졸혼’이라는 법령에도 없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오르내린다[3].

유순희(2017)의 연구는 황혼이혼자들이 이혼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였는지 경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과, 황혼이혼의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개념들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은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수명과 함께 길어진 부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해석되며, 전통적 가족가치의 변화와 민주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유순희는 분석하였다[4].

서덕주(2016)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몇 번의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는데, 특히, 결혼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과 생활이 바뀌에 따라서 빚어지는 결혼생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즉,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과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결혼이고, 시대가 바뀌어 결혼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에 ‘사랑’이 존재함은 변함없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때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

이와같이 ‘결혼’이라는 일생의 큰 사건을 거쳐서 성립된 결혼생활이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이혼율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결혼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배우자’에 대해 부부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결혼이란 과정을 거쳐서 나와 다른 누군가 즉, ‘배우자’라는 존재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전통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하는 연구과정이다[6][18][23-25]. 따라서, 질적연구 수행자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림을 구상하고, 관련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시각과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해야 한다[6][7]. 이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people or things as they are)를 바라보는” 역량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질적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언어를 재구성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8][9]. 따라서 질적연구는 그 본질적 속성을 밝히는 해석적 패러다임으로써 방법(method) 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이라고 할 수 있다[10-12][18].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인식을 진단하고, 더불어 배우자가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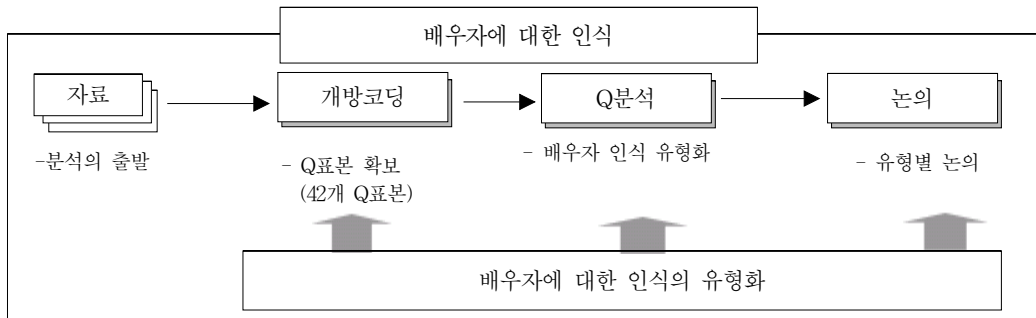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설발견적접근(abductive approach)방법’이므로, 향후 많은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계량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론

### 1. 주관성 연구의 이해

Q방법론은 Stephenson에 의해 1935년 Nature에 방법론적 가능성이 발표된 이후, 인간의 주관성 즉, 인간의 심리적·내면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의되어왔다[13][14]. Q방법론에 깔려있는 논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으로 종종 비유되고 있다. 즉, Q방법론은 마치 우리가 빛이 닿는 곳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추측해야하는 과정과도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Q방법론은 과학적 발견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21][22].

기존 방법론은 연역과 귀납을 이용하여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가설연역적(hypothetic-deductive)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Q방법론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 낸다. 즉, 기존의 R방법론을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reasoning from the hypothesis)’라고 한다면, Q방법론은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 또는 ‘가설발견’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abduction’은 가설연역의 방법보다 선행해야 한다[15-17].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부부가 되어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유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즉,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는 [ ]다’에서 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시 결혼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조사하여 응답의 결과를 유형화하였다.

### 3. Q분석과정

#### 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확보된 Q모집단은 “코딩(coding)”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성 있는 Q표본<sup>1)</sup>(Q-sample, 또는 Q-statement) 총 42개의 배우자에 대한 인식(Q모집단)을 확보하여, 최종 Q표본 42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Q표본은 [표 1]과 같다.

#### 2) P표본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배우자와 관련한 용어 42개를 응답자 P표본의 인식정도에 따라서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분류의 주체인 P표본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2)</sup>

1) Q표본은 분석을 위하여 Q모집단으로부터 최종 추출된 표본으로 일반적으로 statement의 유형임에 따라서 ‘Q-statement(진술문)’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Q-sample)으로 기술하였다.

2) P표본의 수는 Q표본의 수와 비슷해서 보통 40±20명 정도가 일반적이나, 그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14].

표 1. Q표본

1. 사랑	22. 나보다 좋은 사람
2. 원수	23. 영원히 함께 할 사람
3. 인연	24. 지킴이
4. 나	25. 무거운 짐
5. 스승	26. 해결사
6. 자식	27. 문제어른
7. 수수께끼	28. 영양제
8. 귀머거리	29. 책임자
9. 럭비공	30. 리더
10. 남	31. 스마트폰
11. 악연	32. 더 알고 싶은 사람
12. 긴 실타래	33. 돋보기
13. 행복	34. 방향제
14. 친구	35. 아침커피
15. 나침반	36. 보약
16. 거울	37. 직장동료
17. 우산	38. 가계부
18. 부모	39. 거짓말쟁이
19. 미래	40. 애인
20. 재산	41. 보험
21. 꼭 있어야 하는 존재	42. 복덩이

3) Q분류 및 자료처리

Q분류(Q-sort)는 앞서 선정된 42명의 P표본에게 [그림 2]와 같은 Q분류표를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강제적분류(forced distribution)는 응답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Q분석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19][20]. P표본으로부터 Q분류 결과를 확보한 다음에는 이 자료를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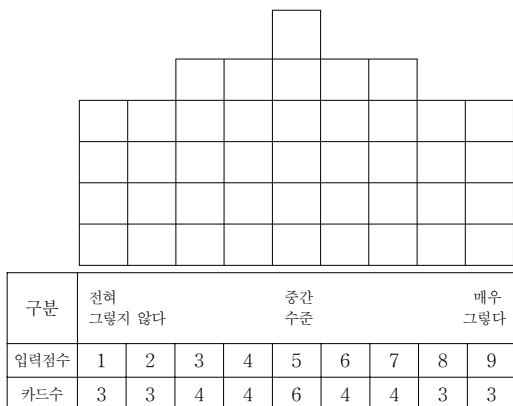


그림 2. Q-sort의 분포와 점수구성

Q분석은 42개의 항목(진술문)을 P-표본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Q분석결

과에 대한 해석은 유형화된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사후 진술문을 확보하여 응답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유형 분석결과

[표 2]는 유형별 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1>은 54.73%. <유형 2>는 6.38%로 전체 61.1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량

구분	유형 I <사랑-인연형>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
Eigenvalues	21.89	2.55
변량 %	0.5473	0.0638
누적변량 %	0.5473	0.6111

[표 3]은 유형간 상관분석결과로, <유형 I>과 <유형 II>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형간 상관관계

구분	유형 I <사랑-인연형>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
유형 I	1.000	-.222
유형 II		1.000

[표 4]는 각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응답자가 <유형 I>을 설명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도 <유형 II>보다 높고, 다시 배우자와의 결혼여부에 대한 의견도 <유형 I>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Q분석에 의한 Q표본의 표준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I>은 '사랑', '인연', '영원히 함께 할 사람', '행복', '꼭 있어야하는 존재', '애인' 등의 긍정적인 배우자 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I>을 「사랑-인연형」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유형 II>는 '긴 실타래', '책임자', '수수께끼', '인연', '미래', '자식' 등의 다소 무거운 배우자 상을 강조하고 있어, 「실타래-책임자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4. P표본의 인자가중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인자가중치	성별	성명	직업	결혼경력	자녀	생활만족	지금배우자와 다시결혼여부
〈유형 I〉 「사랑-인연형」 (n=36)	6,5790	여성	임0임	자영업	37년	1남	매우만족	예
	5,4051	남성	송0현	회사원	9년	1녀	매우만족	예
	4,4933	남성	0광진	회사원	2년	없음	매우만족	예
	4,2456	남성	0영록	회사원	4년	1남	매우만족	예
	4,1138	남성	0진우	회사원	4년	1녀	매우만족	예
	4,0555	남성	장동0	연구원	17년	1남1녀	매우만족	아니오
	4,0057	남성	김0희	회사원	13년	2남1녀	매우만족	아니오
	3,9517	남성	이종0	회사원	28년	1남1녀	불만족	예
	3,9090	여성	0민아	사무직	3년	임신중	매우만족	예
	3,3520	남성	0재선	회사원	4년	1남	매우만족	예
	3,2726	남성	강0규	회사원	16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2,8609	남성	0성철	연구원	23년	1남1녀	보통	아니오
	2,7867	여성	지선0	회사원	1년	없음	매우만족	예
	2,7277	여성	박0남	교수	26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2,6419	여성	류0렬	공무원	21년	1남	매우만족	예
	2,6270	여성	우0순	사무직	19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2,5406	남성	0강일	회사원	8년	2녀	매우만족	아니오
	2,4811	여성	0정이	연구원	4년	없음	매우만족	예
	2,2797	여성	0수진	연구원	11년	1남1녀	매우만족	아니오
	2,1467	여성	0수연	영양사	18년	1남1녀	보통	아니오
	2,1228	남성	0동배	연구원	23년	2남2녀	매우만족	아니오
	2,0098	여성	김0주	대학강사	32년	1남	매우만족	예
	1,9519	남성	김0진	회사원	8년	1남	매우만족	예
	1,8822	남성	유호0	회사원	9년	1남	매우만족	예
	1,5980	남성	0병수	회사원	14년	1남2녀	매우만족	예
	1,5309	여성	공0은	교사	6년	2녀	매우만족	예
	1,4361	남성	0혜근	회사원	11년	1남1녀	보통	아니오
	1,3919	여성	백0희	상담사	26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1,3591	여성	김선0	연구원	3년	1녀	매우만족	아니오
	1,3089	여성	이0희	교수	7년	1남	보통	예
	1,2912	남성	0영설	교사	17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1,1515	여성	이0선	사무직	1년	없음	매우만족	예
	1,0590	남성	양희0	교수	17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1,0501	여성	조0순	교사	17년	1남1녀	매우만족	예
	0,4463	남성	정0주	회사원	2년	1남	매우만족	예
	0,4413	여성	0인혜	연구원	1년	없음	보통	아니오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 (n=6)	1,1727	여성	정성0	공무원	14년	1남1녀	보통	아니오
	1,0273	여성	강0정	교사	8년	1남	보통	아니오
	1,0001	여성	김0주	회사원	14년	1남	보통	아니오
	0,3422	남성	백0주	회사원	21년	3녀	보통	아니오
	0,2757	남성	이0탁	교사	20년	1남1녀	만족안함	아니오
	0,1759	여성	이0숙	교사	19년	1남1녀	보통	아니오

표 5. 배우자 인식 유형별 표준점수 분포

진술문	<유형 I> 「사랑-인연형」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
1. 사랑	1.81	-1.61
2. 원수	-1.82	-1.03
3. 인연	1.63	1.42
4. 나	0.08	-0.14
5. 스승	0.13	-1.22
6. 자식	-0.50	1.13
7. 수수께끼	-0.91	1.51
8. 귀머거리	-1.39	0.88
9. 럭비공	-1.20	0.86
10. 남	-1.43	-0.31
11. 악연	-1.87	-0.91
12. 긴 실타래	-0.40	1.86
13. 행복	1.54	-0.91
14. 친구	1.37	1.06
15. 나침반	0.62	-0.33
16. 거울	0.43	0.61
17. 우산	0.51	0.21
18. 부모	-0.24	-0.71
19. 미래	0.77	1.19
20. 재산	0.34	0.54
21. 꼭 있어야 하는 존재	1.49	-0.02
22. 나보다 좋은 사람	0.89	-1.05
23. 영원히 함께 할 사람	1.56	-1.05
24. 지킴이	0.91	0.68
25. 무거운 짐	-1.54	0.20
26. 해결사	0.19	-1.17
27. 문제어른	-1.46	0.73
28. 영양제	0.45	-1.40
29. 책임자	0.06	1.85
30. 리더	-0.19	0.54
31. 스마트폰	-0.65	0.41
32. 더 알고 싶은 사람	0.01	0.21
33. 돌보기	-0.51	-0.09
34. 방향제	-0.10	-0.65
35. 아침커피	0.15	-0.33
36. 보약	0.56	0.03
37. 직장동료	-0.83	0.75
38. 가계부	-0.59	0.05
39. 거짓말쟁이	-1.53	0.63
40. 애인	1.00	-2.15
41. 모험	0.23	-0.27
42. 복덩이	0.44	-2.00

2. 유형별 특성

1) <유형 I>, 「사랑-인연형」

<유형 I>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사랑’, ‘인연’, ‘영원히 함께 할 사람’, ‘행복’ 등의 긍정적인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악연’, ‘원수’, ‘무거운 짐’, ‘거짓말쟁이’ 등의 부정적인 진술문에 대하여

는 음의 표준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유형 I>을 「사랑-인연형」으로 명명하였다[표 6].

표 6. <유형 I>의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표본(±1.0 이상)

Q-표본	표준점수
•사랑	1.81
•인연	1.63
•영원히 함께 할 사람	1.56
•행복	1.54
•꼭 있어야 하는 존재	1.49
•친구	1.37
•애인	1.00
-----	
•럭비공	-1.20
•귀머거리	-1.39
•남	-1.43
•문제어른	-1.46
•거짓말쟁이	-1.53
•무거운 짐	-1.54
•원수	-1.82
•악연	-1.87

2)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

<유형 II>에서는 ‘긴 실타래’, ‘책임자’, ‘수수께끼’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애인’, ‘복덩이’, ‘사랑’, ‘영원히 함께 할 사람’ 등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 II>는 <유형 I>과는 상반된 의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강조진술문을 바탕으로 <유형 II>를 「실타래-책임자형」으로 명명하였다[표 7].

표 7. <유형 II>의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표본

Q-표본	표준점수
•긴 실타래	1.86
•책임자	1.85
•수수께끼	1.51
•인연	1.42
•미래	1.19
•자식	1.13
-----	
•나보다 좋은 사람	-1.05
•영원히 함께 할 사람	-1.05
•해결사	-1.17
•스승	-1.22
•영양제	-1.40
•사랑	-1.61
•복덩이	-2.00
•애인	-2.15

3) 유형간 차이가 높은 진술문 분포

[표 8]은 <유형 I>과 <유형 II>의 표준점수 분포의 차이가 큰 진술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표 6]

과 [표 7]에서의 분포에서 두 유형의 결과를 볼 수 있듯이, <유형 I>은 배우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형 II>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표 8]의 두 유형간의 차이가 높은 진술문을 보면, '사랑', '애인', '영원히 함께 할 사람', '행복' 등의 진술문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형 I>이 강조한 진술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형 II>는 높으나 <유형 I>이 낮음으로 음(-)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수수께끼', '귀머거리', '긴실타래', '문제어른'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진술문은 <유형 II>에서 강조한 진술문임을 알 수 있다.

표 8. 유형간 차이가 높은 진술문

Q-표본	<유형1> 표준점수	<유형 2> 표준점수	차이
•사랑	1.81	-1.61	3.42
•애인	1.00	-2.16	3.16
•영원히 함께 할 사람	1.56	-1.05	2.61
•행복	1.54	-.91	2.45
•복덩이	.44	-2.00	2.44
•나보다 좋은 사람	.89	-1.05	1.93
•영양제	.45	-1.40	1.85
•꼭 있어야 하는 존재	1.49	-.02	1.51
•해결사	.19	-1.17	1.36
•스승	.13	-1.22	1.35
•스마트폰	-.65	.41	-1.06
•남	-1.43	-.31	-1.12
•직장동료	-.83	.75	-1.58
•자식	-.50	1.13	-1.63
•무거운 짐	-1.54	.20	-1.75
•책임자	.06	1.85	-1.79
•럭비공	-1.20	.86	-2.06
•거짓말쟁이	-1.53	.64	-2.17
•문제어른	-1.46	.73	-2.18
•긴 실타래	-.40	1.86	-2.26
•귀머거리	-1.39	.88	-2.26
•수수께끼	-.91	1.51	-2.42

### 3. 유형별 논의

#### 1) 유형간 일치문항

[표 9]는 <유형 I, 사랑-인영형>과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문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는 '인연', '친구'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식으로는 '원수', '악연'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는 인연이고 친구이지, '원수'나 '악연'은 아니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표 9. 유형간 일치문항(±1.0 이상)

Q-표본	표준점수
•인연	1.53
•친구	1.22
•악연	-1.39
•원수	-1.43

#### 2) 유형간 교차분석 및 가설발견

[표 10]은 유형별 응답자의 결혼생활만족도와 배우자에 대한 재선택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간 응답자의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 유형간 응답자 특성분포

구분	유형1	유형2	χ <sup>2</sup>	
결혼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30(83.3)	-	17.50 **
	보통	5(13.9)	5(83.3)	
	만족안함	1( 2.8)	1(16.7)	
다시 배우자 선택여부	예	26(72.2)	-	11.38 **
	아니오	10(27.8)	6(100)	
계	36(100)	6(100)		

\*p(0,05) \*\*p(0,01)

<가설1> 배우자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설2> 배우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시 배우자를 선택할지에 차이가 있다.

#### 3) 응답자의 진술문

본 연구는 결혼이라는 전례를 통하여 구성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결혼' 또는 '부부'라는 존재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경험' 내지는 '과정'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부부의 상대방인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는 ( )다’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분석결과 2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더불어, 각 유형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다음과 같은 응답자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유형 I, 사랑-인연형>을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유형 I>의 응답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인연이고, 운명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유형1, 응답자 A의 진술>**

(인자기중치, 6.5790, 임0임, 여, 결혼경력 37년, 자영업, 지금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 Q표본 : 사랑, 인연, 행복, 영원히 함께 할 사람**

“1980년 중매로 선을 본 후에 38일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삶을 보면, 부부는 ‘인연’과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 재미없는 친구처럼, 부부가 그런 인연이 되었다면 서로의 많은 노력없이는 고통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형1, 응답자 B의 진술>**

(인자기중치, 5.4051, 송0현, 남, 결혼경력 9년, 회사원, 지금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 Q표본 : 사랑, 인연, 행복, 친구**

“사랑은 기본적인 부부간의 마음가짐임. 인연이기 에 배우자가 되었다고 생각함. 늘 친구처럼 편안한 그런 사람”

**<유형1, 응답자 C의 진술>**

(인자기중치, 4.2456, 0영록, 남, 결혼경력 4년, 회사원, 지금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 Q표본 : 사랑, 인연, 나보다 좋은 사람, 영원히 함께 할 사람**

“사랑의 결실, 상호선택의 결과, 부족한 나를 채워주는 존재, 평생을 함께 해야하는 사이”

다음은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을 설명하고 있

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유형 II>의 응답자는 배우자를 실타래를 풀 듯 노력이 필요한 대상인 동시에 책임져야 할 존재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유형2, 응답자 D의 진술>**

(인자기중치, 1.1727, 정성0, 여, 결혼경력 14년, 공무원, 지금배우자와 다시 결혼안한다)

**(+) Q표본 : 책임자, 인연, 미래, 친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음은 인연이 아닐 수 없음. 또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 해야하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함”

**<유형2, 응답자 E의 진술>**

(인자기중치, 1.0273, 강0정, 여, 결혼경력 8년, 교사, 지금배우자와 다시 결혼안한다)

**(+) Q표본 : 긴실타래, 미래, 수수께끼, 책임자**

“긴 실타래처럼 그 맨 안쪽의 최종은 모르지만 하나씩 풀어가야하는 것,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 나와 아이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 연구 결과, ‘배우자’는 ‘인연’이고 ‘사랑’이고, ‘책임’을 져야할 존재로 확인 되었다. 더불어 ‘긴 실타래’와 ‘수수께끼’와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과연 21세기에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운명’이면서 ‘필연’인 동시에 ‘실타래’를 풀듯 노력이 필요한 대상이며 책임져야 할 ‘의무적인 관계’로서의 존재인 것이다.

**IV. 결론**

기혼자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동시에 인생의 동반자이며 결혼생활의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전통사회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너무도 당



연한 관례였고, 현대의 부부에 비해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결혼율은 낮아지는 반면 이혼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부부들은 결혼생활 속에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인터뷰를 실시하여 42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확보된 진술문은 질적연구방법론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유형이 도출되었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I>은 54.73%, <유형 II>는 6.38%로 전체 61.1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둘째, 각 유형별 진술문의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유형 I>은 '사랑', '인연', '영원히 함께 할 사람', '행복', '꼭 있어야 하는 존재', '애인' 등의 긍정적인 배우자 상을 강조하고 있어, 「사랑-인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는 '긴 실타래', '책임자', '수수께끼', '인연', '미래', '자식' 등의 다소 무거운 배우자 상을 강조하고 있어, 「실타래-책임자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유형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형 I, 사랑-인연형>과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에서 일치하는 진술문으로, 긍정적 인식의 진술문으로는 '인연', '친구'로, 부정적 인식은 '원수', '악연'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는 인연이고 친구이지, 원수나 악연은 아니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유형간 응답자의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배우자의 인식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고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진술문을 살펴본 결과, <유형 I, 사랑-인연형>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하면서 배우자를 소중한 존재로 강조하였고, <유형 II, 실타래-책임자형>은 배우자에 대해 수수께끼와 같은 알기 쉽지않은 존재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진술을 보였다.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 및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방법론이다. 무엇보다 질적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시각과 사고를 구체화하여 보고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즉, 질적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해 “인물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people or things as they are)” 볼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질적연구의 연구자는 기술(skill)로 연구역량을 과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질적연구는 현실세계, 사회현상, 사물, 인물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보여지고 듣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과 언어들을 재구성하는 방법(method)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으로써의 해석적 패러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발견된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가설검증의 계량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http://100.daum.net>
- [2] <http://kosis.kr>
- [3] 동아일보, 오피니언, 2017.10.31.
- [4] 유순희,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5] 서덕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다름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에너지, 2016.
- [6] 서근원,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제 46권, 제3호, pp.133-161, 2008.
- [7] J. W. Cre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1994.
- [8] 이도희, 조우연, “BSC관점의 사회복지법인 운영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pp.117-145, 2012.
- [9] Pierre Thévenaz,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그린비, 2011.

[10] 이도희, 이동규,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비영리회계 인식의 가설 발견적 접근,” 회계연구, 제12권, 제1호, pp.281-308, 2005.

[11] 이도희, 김선경, “Q방법을 활용한 재무행정 인식의 유형화,”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59-178, 2014.

[12] 이도희, 김선경,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주관성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pp.19-43, 2016.

[13] W. Stephenson, *Consciousness Out-Subjectivity in*, The Psychological Record 18, 1968.

[14] W. Stephenson, *Scientific Creed. Philosophical Credo*, The Psychological Record 11, 9-17, 1961.

[15] R.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Mass, Yale University Press, 1980.

[16] 김현수, 원유미, *Q방법론*, 교육과학사, 2000.

[17] R.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Mass, Yale University Press, 1980.

[18] Simaon Wattes, Paul Stenner, *Q방법론 연구의 실행: 이론 · 방법 · 해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9] 김홍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선북스(주), 2008.

[20] 김홍규, *Q방법론의 과학정신탐구*, 공주대학교 미발간 특강자료, 2003(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94, 언론학보 13 : 5-44 인용).

[21] Keith P. Sanders, *Sports news reading: A Q-Metodological Approach*, Doctor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1967.

[22] 김홍규,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Vol.6, No.1, pp.1-11, 1992.

[23] 정연선, 권혜진, 백경아,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544-554, 2016.

[24] 김윤정,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전문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24-234, 2014.

[25] 안이수,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Q방법론

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527-539, 2018.

저 자 소 개

이 도 희(Doh-Hee Lee)

정회원



▪ 2017년 9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전공분야> : 경영학(관리회계), 사회복지학, 법학

김 다 요(Da-Yo Kim)

준회원



▪ 2017년 3월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전공분야> : 경영학

박 행 님(Haeng-Nim Park)

정회원



▪ 2012년 3월 :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특별초빙조교수

<전공분야> : 기독교교육